

서유럽의 양돈산업 현황

- 홍 보 부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EU는 15개 국가로 회원국가 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EU지역내 양돈산업의 새로운 규모와 생산체계를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좋은 시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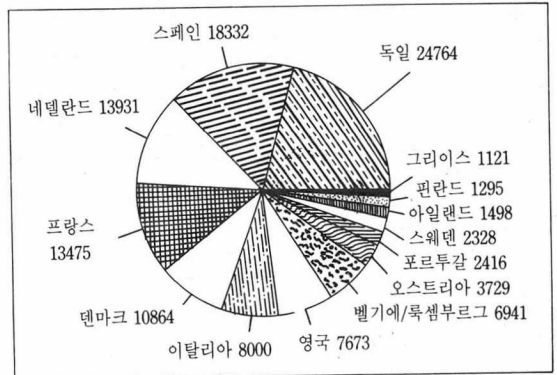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된 도표와 그림들은 다양한 기구와 조직들 특히 EU의 공식 통계청인 Eurostat와 같은 조직들에 의하여 발표된 최근 자료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1994년말 시행되었던 각국별 양돈산업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새로운 EU 15개국 공동체가 사육하는 돼지는 거의 1억1천6백4십만두에 달하고 이중 독일, 스페인, 네델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의 5개국이 EU지역내 총 사육두수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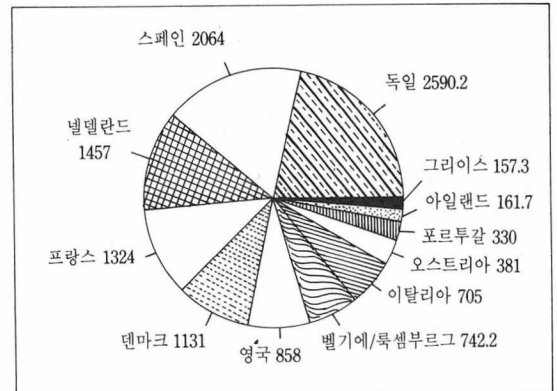
또 이번엔 새로이 EU에 가입한 3개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총 7백4십만두로서 이는 이들 3개국이 가입하기전 EU 12개국 총사육두수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현황(도표 2)을 살펴보면, EU는 현재 1천2백3십만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10년동안 EU 지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모돈 사육두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던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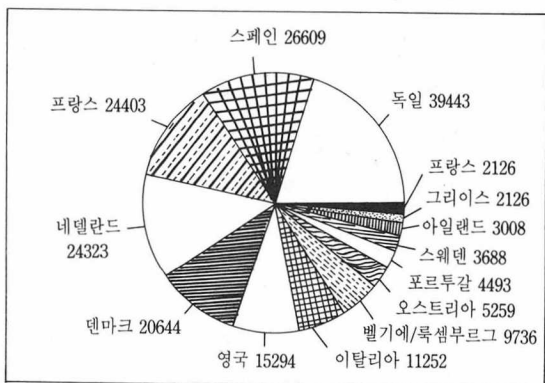
가들은 아일랜드(약 42% 증가), 스페인(31% 증가)이었으며, 포르투갈(8% 증가)은 비교적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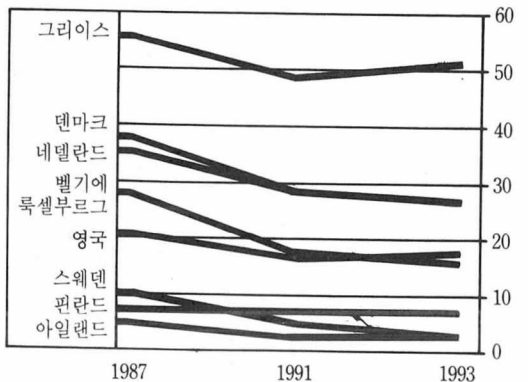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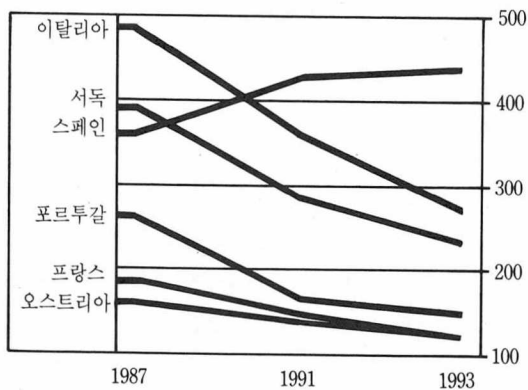
<도표 1> 양돈농가 현황(천두), 1994. 12월



<도표 2> 모돈사육두수(1994년 12월 기준 ; 천두)



〈도표 3〉 도축현황 1994년 (총 생산량 : 천두)



〈도표 4〉 사육규모의 변화(1987~1993) 단위 : 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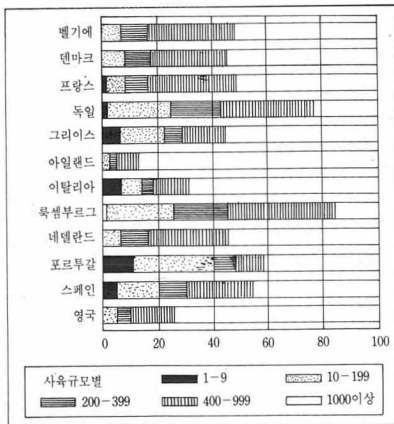
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이기간 동안 모든 사육두수의 감소세를 나타낸 국가들은 서독(약 18.5% 감소), 이탈리아(7% 감소), 영국(4.5% 감소), 그리스(4% 감소), 오스트리아(4% 감소)로 나타났다.

EU 15개 회원국에서 1994년 한해동안 도축된 돼지는 대략 1억9천2백55만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3 참조) 〈도표 3〉을 살펴보면 상위 5개국들에서 도축된 돼지가 1994년 한해동안 EU지역내 도축된 전체물량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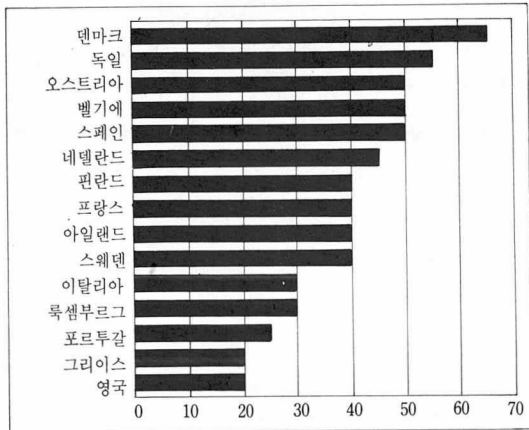
각국의 양돈농가수의 집계는 매 2년마다 Eurostat에 의하여 취합되어지며, 가장 최근에 조사, 취합된 자료는 1993년 12월에 있었던 것이다. 신규 가입 3개국을 제외한 과거 EU 12개국의 사육농가수는 1989년에 거의 1백8십만호에 다다랐지만 이후 1991년에 대략 1백6십만호로 감소된데 이어 1993년 조사에서는 대략 이들 12개국의 양돈농가 총호수는 1백4십만호인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다. 1987년부터 1993년 사이 개별국가들에 있어서 사육농가수의 이와같은 감소추세는 〈도표 4〉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외없이, 그들은 서유럽지역 양돈생산부문이 소수 농가수로 점차 감소 통합되고 있음을 시인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6년동안 그들의 국가의 양돈기업농가수가 40%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양돈기업농가수의 감소는 전체농가수의 1/3~1/4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3년말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EU지역 총 돼지 사육두수중 47%가 1,000두 이상의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으며, 총 사육두수의 27%는 400~999두 규모의 농가에서, 나머지 25~26%의 돼지만이 비교적 소규모의 양돈농가에 의하여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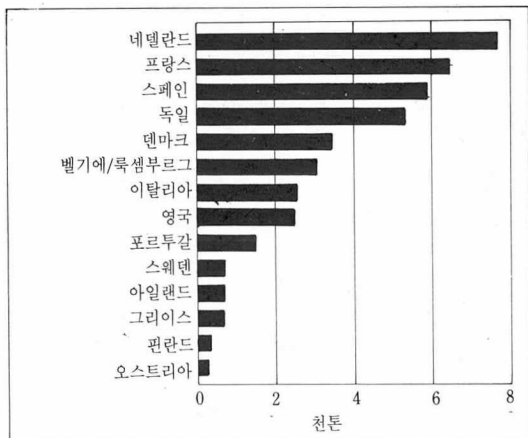
하지만 각국의 양돈산업구조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에서처럼 1993년에 분석되



〈도표 5〉 사육규모별 시장 점유율(1993년 12월 기준)



〈도표 6〉 1인당 연간 돈육소비량(kg : 1994년 기준)



〈도표 7〉 1994년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현황(천톤)

어진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400두 이상 규모의 양돈농가에서 전체 사육두수의 90~95%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대규모의 양돈농가들에 의하여 전체시장의 80~85%가 점유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며, 그리이스와 스페인의 경우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61%, 룩셈부르크는 54%의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포르투갈은 52%로 제일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994년 한해동안 EU 지역에서 소비된 돼지고기는 1천5백5십만톤이지만 전체 생산량은 EU지역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약 1천5백7십만톤에 달한다. 〈도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돼지고기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고 돼지고기는 EU 지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육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돈용 배합사료는 전문적인 사료공장이 생산, 판매하는 것이 드물다. Fefac(The European federation of feed manufacturers ; 유럽사료제조연합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별 결과를 토대를 기초로 한 〈도표 7〉은 각국별 양돈용 사료생산량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아일랜드 사료곡물협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돼지들은 자가배합용 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 전문화된 배합사료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아일랜드나 프랑스의 북부지역인 브리타니(Brittany)지역의 경우는 양돈사료의 자가배합률이 전체사료생산량의 15%에 달하는 반면 네델란드의 경우는 단지 약 3%만이 농가에서 만들어진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양돈사료 수요량의 20~25% 정도가 자가배합되어지며, 덴마크의 경우는 50% 이상이 자가배합되어진다.